

## 문화산업과 접목한 어항어촌의 새로운 역할



이흥식  
중앙대학교 교수

어항 어촌은 대규모 항만에 비하여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양호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광 기능을 겸한 다기능어항 건설로 정책방향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항개발에 대하여 보다 새로운 차원의 어항어촌의 역할을 정립하여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해 본 것이다. 최근에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웰빙열풍과 관련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의 장으로서, 체험장이나 이벤트에 관련한 커뮤니티의 장소로서 어항 어촌의 역할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항(대표 6개항 분석, 국동, 돌산, 감포, 양포, 격포, 서망항)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배후 부지에 폐어망 및 쓰레기 무단 방치, 불법시설물의 과다, 국립공원구역에 인접된 경우 배후부지의 시설물 설치의 제약, 배후부지에 있는 노후건물 방치, 주변도로 사정으로 인한 낮은 어항 접근성, 어항의 개발·관리·이용 주체의 상이로 주민의식 부재, 관리재원 부족으로 인한 상시 관리요원 부재 등이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어항내 무허가 건물 등 불법 시설물과

폐자재, 폐어망 등 불법 적치물 철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및 진입로 조성, 국가에 귀속된 민자시설 매각 처분,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또 관광어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친수시설, 녹지공간, 쇼핑물 유치,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의 유도, 이용자 단체의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배후부지가 넓고 비활성화 상태의 어항의 경우는 최근 정착된 주5일제 근무제, 웰빙열풍, 한류문화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민의 방문, 단체관광 등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드라마 세트장 등)

또 이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어촌의 교류 패키지 상품개발, 바다관련 문화 예술 상품 개발, 어촌축제행사, 문화이벤트 개발, 어민의식 향상, 어촌소재 드라마 발굴, 소형 어촌마을 박물관 건립, 아름다운 어항 이미지 홍보, 수족관 및 콘도미니엄 건립, 낚시터 조성, 어항어촌 상설전시관, IT화된 어항어촌 홍보, 어항어촌 휴식 공간 제공, 어항어촌어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어항별로 특색있게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총망라하여 문화적 수단을 이용 어항어촌에서 부가가치 창출로 이끌어 내는 것이 어항어촌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기존에는 어업인 위주의 어촌관광 정책이 견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바다가 국민 공유의 성질이 강해짐에 따라 어항도 어업인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어촌 어항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현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은 아직까지 수산물 시식/쇼핑 및 해수욕 등 전통적 관광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관광활동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장기 체류형인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 및 관광시설의 조성이 요구된다. 또 하계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며 다양한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정보의 제공 등으로 관광활동의 다양화 및 관광객을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것은 먼저 숙박·식당

시설 개선, 주차장·도로 정비, 관광객에게 적합한 유어선 개조 등 각종 접객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제, 이벤트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생태체험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지도록 패키지화시켜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홍보를 위하여 어촌계 자체적인 어촌관광 정보센터의 운영도 필요하다.

어촌 관광사업 시행 시 해당 어촌의 특색을 살려야 하므로 각종 수산사업과의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의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100선 지원사업, 연안 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등 자원 조성 사업, 어촌정보화 사업 등 각종 수산정책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 외에도 어업인들의 자체적인 교육과 조직화가 중요하고, 아울러 마을별로 해설 가이드를 양성하여 자기 마을에 대한 역사 문화 해설과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관광개발이 지역 문화 및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 파괴의 역기능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촌의 여건에 맞으면서도 특성화가 되고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 개발이 요구된다.

## 어항의 새로운 역할 · 기능과 발전방향



오츠카 코지  
어항어장어촌기술  
연구소 실장

어항이 갖고 있는 다면적 기능은(여기서는 어항 뿐만 아니라 어장, 어촌을 포함한 수산기반 전체를 대상으로 함) △안전한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사회의 유지 △생명재산의 보전 △생활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말할 수 있다.

다면적인 기능에는 본래 기능인 안전과 공급 외에 순환, 환경, 생태계, 문화, 재해예방, 교류, 보전, 경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며 이들 키워드가 미래 수산기반(어항 어장 어촌) 준비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산기반은 생산의 장소, 공급의 장소, 생활의 장소로서 준비가 전개되어왔다. 일본에서는 시대적 변천 및 사회 수요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양적, 질적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오고 있다.

과거엔 어업자나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작업환경이나 생활환경의 준비가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는 소비자, 국민, 사회도 포함시킨 '새로운 질'이라는 관점이 추가되고 있다.

안전·안심적인 수산물 공급체제의 구축을 위한 고도위생 관리 대응형 어항 만들기 사업과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수산 부산물의 리사이클 활용,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등을 지원하는 도시어촌 교류 촉진 등의 사업은 어항·어촌의 새로운 시점, 새로운 역할·기능에 따른 사업이다. 이외에도 어항과 어장의 일체적 정비, IT를 활용한 어항어장 관리의 이용과 고도화 등도 주요 사업이 된다.

새로운 관점이 도입된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 장기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지표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성과지표 구축, 기르는 어업의 추진, 풍요로운 연안역 환경의 보전·창조, 안전·안심적인 수산물 공급시스템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공간의 형성, 방재 대책 강화, 기존자산의 유효활용, 순환형 사회 구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촌지역이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항어장어촌은 생산의 장소, 공급의 장소, 생활의 장소라는 본래의 역할과 함께 도시민과 어촌 지역민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산기반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 일본의 어항어장어촌



나카무라 타카시  
일본수산청 어항어장  
정비부 과장보좌

일본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의 적극적인 보존 및 창조 △수산 진흥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어촌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동안 △연안역 어장환경 1만ha 회복 △어업 생산량 37만톤 증산 △어촌취락배수 시설율을 소도시수준(약 60%)으로 향상 등을 구체적 목표로 잡고 있으며 사업량은 5년간 △어항어장정비 1,100지구 △조장간석지의 창출면적 5,000ha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비 430지구 등이다.

어촌정비 사업으로는 첫째 생활환경정비, 둘째 해양심층수, 자연에너지 이용, 정보기반 구축, 셋째 도시어촌교류, 넷째 어항어촌의 방재대책 등이다.

△생활환경정비는 어촌생활개선과 어장수질 개선을 위한 어업취락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해양심층수 이용 사업은 기르는 어업 지원용 시설정비,

청정해수 공급용 시설 정비와 해양심층수 체험시설 등 어촌 커뮤니티 기반정비 등을 포함한다.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정비는 공공사업으로 수산기반정비 사업인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수산자원 환경 정비사업, 어촌 종합정비사업에 풍력,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말하며 비공공사업인 경쟁력있는 수산업 만들기 사업 교부금을 제공, 자연에너지 공급시설을 확충하는데도 보조한다. 어항어촌의 정보기반 시설 확충 사업도 펼치는데 이에선 태풍시 어선, 해황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카메라, 기상정보, 지역정보 파악용 CATV, 어업체험활동 모집과 예매, 수산물 판매, 어촌 홍보용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도시어촌교류는 도시와 어촌을 쌍방향으로 서로 교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실현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부분 활동 지원으로 도시어촌교류를 위한 보급 활동, 교류 이벤트 개최, 어린이들의 해변체험활동, 체험시 안전확보, 인재육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지역특산물판매장, 어촌체험 학습시설 등 시설정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어항어촌의 방재대책으로는 재해에 강한 어항·어촌만들기 사업의 추진하는데 공공과 비공공사업의 연계를 통한 방재 시설의 종합적인 정비(피난도로, 피난지의 정비), 내진강화 안벽 정비를 포함하는 방재 거점어항 정비 등을 실시한다.